



이 동 식 / KBS-ITV 편집주간

행복은 조건순이 아니잖아요

명문대 석사출신 은행원 여성과 역시 명문대 출신의 외국계 컨설팅 회사원이 유명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다. 서로 수 천만 원 어치 혼수를 주고 받으며 결혼을 한다. 당연히 주위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축복하며 부러워한다. 그 결혼생활은 어땠을까?

올해 28살의 한 여성은 재작년 5월 외국계 컨설팅 회사원인 32살의 남성과 유명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5개월만에 결혼했다. 여성은 예단과 예물비용으로 2천200만 원, 시어머니 모피코트 470만 원, 혼수비용 1천400만 원 등을 썼고 남성은 예물비용 1천100만 원, 결혼식 비용 300만 원을 쓰며 제법 넉넉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을 앞두고 부인은 시부모님이 마련해 준 16평 아파트가 낡고 열악하다며 이 집을 세 놓고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렸다. 그런데 문제가 시작됐다. 신혼여행지에서 항공편이 갑자기 변경되자 남편은 당신이 너무 작은 여행사와 계약해 이렇게 됐다며 짜증을 냈고 신혼여행지에서는 카지노를 찾아 슬롯머신에만 열중했다. 결혼 직후 임신한 부인은 입덧이 심해 남편에게 출퇴근을 도와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무성의하게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도 처제에게 언니 퇴근을 도와주라고 미루기도 했다.

남편은 어느 날 언쟁을 벌이다 집을 나갔다. 부인은 시댁을 찾아가 사태수습을 모색하고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남편은 장인, 장모가 내 행동을 일일이 지적하며 모욕을 줬다며 사과를 받지 않았다. 부인은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상담도 받았지만 남편은 계속 부인을 피했고 결국 부인은 지난해 2월 유산한 뒤 결혼 3개월만에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며 이혼소송을 냈다. 남편도 이에 맞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며 이혼소송을 냈다.

지난 8월 1일 법원은 부부간 문제를 부모에게 알려 사태를 키운 아내에게도 책임이 있으나 근본적인 책임은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부인을 배려하지 않고 사소한 일로 집을 나가 부인의 사과에도 귀가하지 않은 남편에게 있다며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은 위자료 1천500만원을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의 이야기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으로써, 우리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오로지 공부만을 해서 사회에 출세하는 것이 지상의 목표가 돼, 가정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두 남녀가 만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다.

이 사건을 보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문제가 있음은 분명하다. 상식적으로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 쪽에 문제가 더 많고, 그래서 법원도 여성 쪽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여성도 남성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단지 한국 남성들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이해하고 무조건 세워달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대화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문제는 결혼을 앞둔 남성과 여성이 연애를 통해서 서로를 잘 알고 합하는 경우보다는 중매에 의해 외양적인 조건만을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서로를 잘 알고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중매업체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중매로, 조건을 보고 결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혼율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올라간 이면에는 이렇게 상대에 대한 무지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상대를 만나 서로에 대해 알기가 쉽지 않다. 연애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좋고 아름답게만 느껴지기에 진정으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상대에 대한 지식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사고방식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다르게 성장해 왔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생리적인 구조만이 아니라 사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가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결혼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당연히 알 수 있는 이 단순한 진리를 결혼을 앞둔 남녀들은 모를 경우가 무척 많다. 이것이야말로 결혼을 하려는 젊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행복은 조건순이 아니다. 서로가 상대를 자기와 다른 성별로서 인식하고,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를 알고, 이를 미리 생각해주는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다. 행복은 이해순이라고나 할까? **BOOK**